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被監査機關 農水産物公社

日時 1999年11月29日(月) 午前10時
場所 農水産物公社會議室

(10時 46分 監査開始)

○委員長代理 張夏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農水産物公社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地方自治法 제36조제5항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農水産物公社 社長과 임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관계자는 기립하시고, 農水産物公社 社長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農水

産物公社 社長은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社長, 선서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宣誓)

○委員長代理 張夏雲; 계속해서 農水産物公社 社長の 인사 및 農水産物公社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社長은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許信行; 존경하는 鄭韓植 委員長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 特別市議會 제17회 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그 동안 저희 公社가 추진해 온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公社는 IMF 이후의 어려운 구조조정 기간을 맞이하여 사람을 줄이고 거품을 제거하며 친절과 서비스로 고객감동 경영을 시도하고, 개장 이후 산적한 시장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른 한편 가락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과 함께 우리 나라 농수산물의 전반적인 시장 유통문제도 동시에 해결코자 연구와 조사활동에도 틈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의 시장 유통문제는 일조일석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公社의 임직원들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정부의 의욕적인 유통 개혁 정책과 발맞추어서 수도권의 농수산물 유통혁신에 노력

을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公社 전 임직원은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발전과 일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公社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幹部紹介:管理理事 姜炳云, 流通理事 李允熙, 企劃處長 李相潤, 流通處長 曹永台, 指導處長 權純樞, 流通情報處長 李宗根, 糧穀管理事業所長 梁福基)

업무보고를 이어서 드릴까요?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農水産物公社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社長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許信行; 이어서 저희 公社의 99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農水産物公社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世根 委員님.

○吳世根 委員; 農水産物公社 許信行 社長 이하 關係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許信行 社長께서는 취임하자마자 IMF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서 公社도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구 통폐합 및 인원감축을 실시하였으리라고 봅니다.

公社 社長께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가요 전문인입니다. 또 본인도 전문가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許信行 社長께서는 公社의 社長으로 오셔서 가지고 지금까지 업적이나 실적이나 개선점이나 거기에 대해서 숫자적으로나 또 이론적으로나 물론 충분히 답변하시리라고 보는데, 반면 문제점이 또 있지 않는가?

물론, 인간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다면 그것이 신이나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보는데 許信行 社長께서도 그 동안에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지금 건축중에 있는데 사실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행정구조상으로 봤을 때 所長이 지금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될 때까지 許信行 社長께서 업무적으로나 경험으로 봐서 그 업무를 주관하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건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사항도 있었고 감사를 결국에 못했습니다. 農水産物公社 社

長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같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앞으로 오픈을 위해서 내면적으로는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되기까지 업무를 주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고요.

또 상장애외품목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3개 품목 고구마, 알타리무, 산물 쪽파 등 비교적 거래량이 많은 품목을 상장애외품목으로 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公社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전국단감협의회에서 단감의 포장규격을 현행 15kg 상자에서 10kg 상자로 포장을 추진하면서 하역비를 인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다는데, 그에 대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94년 5월 農安法 과동 이후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에 대한 부조리문제, 경매사의 신뢰성 등이 계속 거론되자 전자식 경매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도매시장 법인별로 시연회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식 경매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99년 2월에 상장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인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公社 社長께서 결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郭順英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順英 委員; 郭順英 委員입니다.

公社 社長님께서 여기에 취임하신 지가 1년반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社長 許信行; 네.

○郭順英 委員; 그런데 제가 죽 와서 보니까 어느 社長님보다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과 또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도매인 양수·양도에 대한 것은 업적이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경매체제로 이끈 것은 社長님이 여기에 취임하기 전, 장관 시절이나 취임 후인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부터 99년, 지금 다섯 번째 감사를 합시다만 前 社長들한테도 계속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는 한다고 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1년 돌아오면 그것이 전혀 개선책이 없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축장 이전계획입니다. 91년도에 제가 여기 송파구 구의원을 할 당시에 환경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주변에 주민들 대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일이 있어요, 여기 公社 내에서.

그 때 당시에 도축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98년도에 재계약을 해 주지 않겠다, 재계약을 절대로 해 주지 않고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 현재 도살하고 있는 이것은 딱 데서 도살을 해서 여기에서 갖다가 파는 데만 주력하는데 조금 기한이 걸리지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98년도에는 계약체결을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시의원이고 이 지역 내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한 마디 말도 없이, 또 주민들한테 한 번 설득도 없이 이것을 다시 슬그머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다시 옮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2000년에 부평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거기를 알아보니까 부평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은 절대로 유치하지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반대

를 하고 있다, 반대를 하는 과정에 과연 2000년에 이것을 옮긴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내역을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기의 악취제거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제가 이번에 産業經濟局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하니까 사람 다섯이 모여서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가서 코로 냄새를 맡아서 측정을 한다 그래요. 그런 비합리적인 악취측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악취제거제를 하루에 세 번씩 뿌린다, 그것 뿌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름철에 차문을 닫고 주변을 이렇게 돌면 차 안으로 얼마나 말지도 못할 그런 냄새가 짝 차 가지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혐오시설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한가한 지방 소도시에서도 이것을 일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서울의 북판, 또 고층건물이 그렇게 짹짹 들어섰는데 아주 한복판에서도 살행위를 하고 있고 악취를 풍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도축장 이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트럭판매장 채광막 설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락시장에 와 가지고 5년 후면 85년도에 여기에 입주했으니까 90년부터 이전계획을 누가 얘기를 하느냐면 들어오는 公社 社長님마다 전부 오면 이전소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다 보면 상인들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이전할텐데 돈 들여서 이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으로 벌써 거의 10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區廳長이 민선

으로 91년부터 95년도, 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옮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또 區廳長 얘기로는 뭐냐 하면 옆에 장지동의 78만평으로 옮기고, 여기는 상업시설이니까 유통 대단지, 전자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 하겠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내에 어디를 봐도 이만한 자리 유치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이미 들어와 있으면 다시는 못 들어 올 자리예요. 여기에서 보완하고, 또한 이것이 작다면 이만한 것을 다시 건설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農林部長官이라든지 서울市長이라든지 이것을 입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나와 됩니다. 大統領이 첫째 이것을 옮기는 철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우리 公社 社長님이나 農林部長官이나 서울市長이 가락시장을 이렇게, 가락시장이 적은 데가 아닙니다. 어떤 구멍가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조금 나중에 확실히 정책이 결정돼서 상인들도 동요가 안 되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영업을 잘 하던 사람들도 아이고, 이제는 그만 해야지, 이번에 양수·양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사를 잘 하고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것을 내놓으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이것이 곧 이전하는데 이 장사를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됩니까, 빨리 내놓아야지요.

그리고 복덕방 행위를 어디에서 하느냐면 각 조합에서 해요. 여기 팔고 사고 양도·양수하는 그런 것 社長님께서 추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도태되고 연세를 드시고, 또 영업을 나와서 도저

히 못할 분들, 거기에서 같이 영업을 했고 오래도록 농수산물에 조예가 깊고 유통인으로서 하자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승계를 받아서 양도·양수를 인정해 주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반대로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외상거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장 예외 품목 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선대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인정을 하나 그 외 다른 것, 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유화가 됩니다. 팔고 나서 이것 나 얼마 주고 샀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公社 社長님이 제일 먼저 거기에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트럭판매장, 아까 채광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전 이전 하는데 채광막 기금이 벌써 2년 전에 이미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채광막을 곧 하겠다, 전에 社長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년 넘어가, 2년 넘어가, 지금 3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이유는 한여름에 비 올 때 보세요. 트럭 수백대, 수천대가 완전히 물에 흠뻑 젖어 가지고 고생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이 바로 위에서 비가 오면 밑에서는 썩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벌써 14~15년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몇 년 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상인들을 설득하는 것, 시민참여라는 게, 상인참여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고 상인들도 거기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떠나서 무작위로 불러 가지고 여기에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봐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시민참여입니다.

그래서 公社 社長님께서서는 長官도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들이 상인들의 구미에 맞게 했을 때 시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할 때는 이미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막 설치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회사의 경매장으로 주차장이 전부 다 침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차비 징수가 잘못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도로에서는 주차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제가 많이 찾아보았어요. 주차빌딩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경매장이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이다, 경매장을 철폐하고 주차를 시킬 때 주차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차비를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나 무작위로 놓고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각 회사별로 완전히 철조망으로 가리다시피 해 가지고 자기네 영역, 사유지처럼 쓰고 있어요.

이 안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서 차가 마음대로 회전

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차가 한번 들어가면 그 공간 나오기도 힘들어요. 얽히고 설키고 이런 과정을 바로잡는 게 公社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느 회사는 진짜로 새끼줄을 쳐 놓았어요. 딱 쳐놓고 비어 있는데도 차 한 대 못 대게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법인별 당기순이익금입니다. 이 법인들을 죽 보면 96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든다면 96년도에 1,057억원, 97년도에 761억원, 98년도에 1,117억원, 99년도 10월말 현재 1,139억원입니다. 그런데 農水産物公社 당기순이익은 96년 51억원, 97년 84억원, 98년 104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12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근 70억원, 80억원 하던 것이 12억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안기금이 죽 보면 농협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도매시장 법인 중에서 95년도 354억원, 96년도 529억원, 97년도 453억원, 98년도 297억원, 99년 10월말 현재 246억원의 농안기금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농안기금은 선도자금인 현재 5%입니다. 굉장히 싼 것이지요. 그런데 결제자금 연리 8%의 자금입니다. 99년도를 보면 선도자금·결제자금을 포함하여 서울청과가 17억 3,000만원, 농협이 79억원입니다. 농협이 서울청과보다 물량이 덜 들어옵니다.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농협은 어떻게 해서 엄청난 저리금액의 농안자금을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것인지? 중앙청과가 28억 2,000만원, 동화청과 18억 5,000만원, 한국청과 20억 5,000만원, 대

아청과 10억원, 강동수산 42억 8,000만원, 수협 2억원, 서울 견해 26억원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감자료 8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나 公社는 법인들이 정부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농협은 97년 93억원이에요. 98년에는 89억원, 99년도는 79억 6,000만원을 선도자금 연리 5%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이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수급조절을 하는데 쓰는 농안자금이 아니고 農協中央會에서 이 돈을 갖다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물 쓰레기처리장 운영문제입니다.

수산부분을 우진사료(주)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까지 폐기물 처리량이 3,734톤으로 처리금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강동수산(주) 도매법인에서 (주)한국프로텍스에서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가격이 3억 9,200만원, 99년 10월 31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240㎡, 약 74평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1일 평균 발생량이 19톤이나 되는데 처리능력은 시간당 5톤으로 건조물 처리 후 전량 사료 원료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기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동이 불가능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별도 계약서도 없이 3억 6,000만원짜리를 무상으로 지원한 내용은 무엇이며, 왜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언제 가동을 할 것인가? 시설 설치면적은 강동수산(주)의 허가면적인가, 아니면 公社의 공공면적인가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왜 수산물 쓰레기 처리업자는 우진사료(주)인데 처리기기는 강동수산(주)에서 설치하였는가 이것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도 옥내 용역업체 선정시 (주)TS세월과의 계약도 99년 5억 9,000만원의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 5억 이외에도 수산직판시장과 주차건물동을 강동기업(주)와 계약을 맺었고, 그 밖에 단체들은 자율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97년, 98년, 99년 현재 3년간 33만톤의 발생에 145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든지,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봅니다. 公社 社長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자경매시대입니다. 지금 전자경매식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경매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수의경매,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나 거의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경매식으로 완전하게 경매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경매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사는 각 법인별로 경매사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생산자나 소비자는 관계없이, 또 여기의 상인도 관계없이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회사에 배추가 한 차 들어왔는데 이 배추를 가격 이하로 팔 수도 있고 이상으로도 팔 수가 있어요, 경매사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지금 상인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도 경매사가 이러한

장난을 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매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매사를 公社에서 흡수해서 공영으로 경매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매사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놓아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사를 앞으로 公社에서 흡수해서 재교육을 시켜 생산자나 소비자나 상인 모두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公社에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郭順英 委員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아마 질의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郭順英 委員; 저온창고입니다. 저온창고가 죽 보면 지금 농산물 이쪽으로는 재고처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재고를 어디에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쌓아둡니다. 그러면 아침에는 반값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따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李善宰 委員님.

○李善宰 委員; 李善宰 委員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비좁아서 제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이전을 하실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는 社長님 취임하시면서부터 죽 있어 왔던 얘기고, 또 그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여쭙어 본 일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포화상태가 돼서 옮기셔야 되겠다, 그래야 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신 자료에 보면 자원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잉여재산이 마련돼 가지고 서울시에 부채도 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후보지가 어디냐, 그리고 그 후보지 선정하는데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는 이것이 서울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거기와의 협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점도 다 고려를 하셔서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리로 가면 좋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또 그런 협의를 진행한 게 있다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郭順英 委員이 언뜻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전 문제가 얘기됨으로써 기존 시장의 사람들이 동요를 한다든지, 또 제 기능 하는데 문제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점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신지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디로 확대 이전해 가지고 제 기능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망스러운 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에서 상암동에 물류센터를 건설한다고 아마 심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심의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마포에는 마포농수산물공사인가 해 가지고 도매시장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을 짓는데 안에도 무슨 유통시설이 들어간답니다, 7,000~8,000평 규모가. 그래 가지고 상암동에다 2만평 규모의 또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 주소를 정확히 모릅시다만 다 상암동이 아닌가? 아니라 하더라도 같은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데다 3개씩이나 집어넣어 가지고 과연 그것이 다 성공할 수 있을지 하는 걱

정이지거든요. 그래서 심의하실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社長님이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계신 줄로 압니다. 실지로 몇 번 저희가 보고를 받은 일도 있고 또 계속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자료로 좀 주셔서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즈음 김장철이고 그래서 더 그런 것으로 아는데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를 봐도 이 반입 배송 화물차량 진입공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런 거래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시장에 계신 분들은 소위 변화가 곧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들이 새로운 유통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행을 바꾸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일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볼 예정이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가 위기가 아니고 변화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되는 방향이라고 시장 상인들이 믿을 수 있게만 해 주신다면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쭙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張夏雲 幹事, 鄭韓植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吳尙俊 委員.

○吳尙俊 委員;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쓰레기유발 부담금과 포장재 지원금이 상당히 낮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과물에 대한 경매율이 작년도보다도 한 7%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農水産物公社가 상당히 현금과 예금이 많은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이자율에 의존해서 기업금전신탁이라든지 신중적립신탁 쪽으로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안정성 위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상품마다 예를 들어서 대우채권 편입비율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장기대여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주택이라든지, 전세 이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자들이 많은데 이런 퇴직자에 대한 장기대여금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제공하신 것 중에서 479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운영주체와 관련된 제가 자료요청한 것 답변 중에서 중간쯤에 보면 市費로 건설하거나 農水産物公社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도매센터 시장도 운영가능, 예로 해서 麻浦開發公社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도매센터라는 게 그냥 도매시장을 얘기하는지 물류센터를 얘기하는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市費가 아니라 가락동 농수산물공사를

통해서 건설한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가능한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확대 이전이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을 증축하고 개축하는 형태로 앞으로 갈지 그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산동에 대한 새로 짓는 문제는 좀 내년도로 보류돼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만약 증·개축 부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주 장기적인 증·개축에 대한 전체 플랜과 구도가 잡힌 후에 하나씩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로 반드시, 아무래도 국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류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李亮漢 委員님.

○李亮漢 委員; 李亮漢 委員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許信行 社長님 잘 하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地方財政法이 작년에 바뀌게 됨으로써 1999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시장님한테 승인사항이었을 텐데 2000년도부터는 보고서항으로 끝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공사로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 하면 독립채산제로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市長의 예산승인 자체를 받아서 해결하던 것을 이제는 공사 스스로가 모든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아마 진일보적인 지방공기업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市長님께서 社長으로 넘어올 때의 부담감이라든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라든지, 감사에는 특별한 회계적 감사도 수반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공인회계사 감사로서

끝나지만 자체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가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우리 지방공기업이 農水産物公社뿐만 아니라 6개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을 위주로 하는 기업은 가락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地下鐵公社나 都市鐵道公社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하고 있는데 지방공사로서 약 3,000억원 이상 투자해 가지고 연간 한 1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법인세 담세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서울시 지방공사로서 정부에 의견을 내서 조세감면적인 측면에서 감면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吳尙俊 委員이나 郭順英 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가락동시장이 옮겨간다 그러면 약 5,0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자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간 세금 내고 100억원 가지고는 옮겨갈 수 있는 게 요원하고, 또 政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한다 하더라도 말만 지금 옮겨가는 것이지 실질상 옮겨갈 수 없다, 그렇다면 시설충당금, 새로운 시설을 위해서 충당금적인 요소는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은 社長으로서 충분히 政府에 건의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로 가는지 후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땅 자체의 매수라든지 모든 문제에 대해 말만 할 뿐이지 실제 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 생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중도매인 법인화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법인화를 하는데 있어서

조건을 붙이는 이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범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중도매인 거래장부의 투명화에 관해서 과세의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법인화에 따른 실적증가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중도매인이 현재의 상태로 있는 게 법인화 되는 것보다도 손해가 난다, 특히 그 중에서 담세율이 많아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법인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것은 강력히 올해 안에라도, 물론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추진해서 도매시장 상거래의 정상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입니다. 잔류농약에 대해서 좀더 현재 아무리 좋은 상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시민이 잔류농약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농협이나 E마트, LG마트는 요새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하고 별도로 바로 거래해서 하는 게, 많은 장사를 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사간 소매상들이 각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의 역할, E마트라든지 LG마트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직거래라는 명목을 들어서 조금 싸게 팝니다. 사실은 산지 직거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통비용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가는 것

에서 한 5% 정도 싸게 팔면서 굉장히 싸게 파는 것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제도와 병행하는 우리 가락동시장의 대처방안, 그리고 그분들이 가락동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 가서 동네에 팔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적인,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통비용을 저희들이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전에 郭順英 委員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서울청과, 농협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강동수산, 수협, 서울건해, 축협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약 100억원 가까운 이익을 봤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가락동시장하교의 손익문제에 대해서 중간층에 있는 법인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득은 봐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 물론 가락시장이라는 자체는 공공사업이 70~80% 인정되고 수익사업이 한 20~30%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이분들하교의 조율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그러면 수수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郭委員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많은 소득을 보게 되고 이익을 보게 되면 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특혜시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吳尙俊 委員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 10% 정도, 지금 제출한 예산내용이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10% 미만의 집행 같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의 수익이라는 것은 임대료하고 시장사용료로서 충당하면 될 것이고,

기타의 수입 정도는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된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료, 임대료 주는 것 이 자체는 우리가 공공성이라고 본다 그러면 입주자 관리수익이라든지 주차수익이라든지 점용료수익 정도의 큰 항목 중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공공적인 문제와 수익적 문제가 병행된 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적인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社長님의 의견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韓植 委員長, 吳尙俊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吳尙俊; 수고하셨습니다.

梁敬淑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가락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상당부분 체계가 잡혀 나가고 있고, 전망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해서 서울市長과 農水産物公社 社長이 경매제를 끝까지 고집해서 지금 현행대로 강행을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 장기 발전방향을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만 도매유통이 경매제가 퇴조되고 도매상제가 일반화되어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도 변화추세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고 도매상제나 경매제나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예산낭비도 막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이전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는데 영등포시장 상인들과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 서울시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확하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시장 상인들이 전부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만 현재 남아 있는 영등포시장이 존립 자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이 인접거리에, 영등포시장도 크게 변화되지 않고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대로 추진되게 됐을 때 두 시장 다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구리도매시장처럼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가락시장을 옮기겠다라는 거창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데 그 내용의 핵심은 현재 시설로는 본질적으로 과포화 상태나 과밀화 문제나 노후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이전한다라고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公社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역할 자체를 설정하고 있다, 땅을 지금 16만 4,000평을 팔아먹겠다,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전비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 보고해도 되는 것인지?

가락동 농수산물공사가 그렇게 대단한 조직이에요? 가락시장을 시민들 땅으로 해서 시유지로 확보를 해 주니까 뭘 3,000억원 정도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가 팔면 1조 5,700억원 어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산가치 평가가 3,000 몇 백억원이라고 그랬는데 1조 5,700억원 어치에 대해서 왜 자산평가 안 했어요? 자산평가가 적어도 1조 5,700억원이 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해명하시고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자산이 어떻게 3,000 몇 백억원인데 땅값은 5,700억원이다, 그래서 땅값을 자산에다 제대로 넣어 놓지도 않고, 또 누가 마음대로 땅을 팔 권한이 있어요, 公社가?

또 하나는 종합적으로 思考하고 있지 못해요. 이 16만 4,000평을 누구한테 팔든 간에, 그러면 그 산 사람이 도매시장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도매시장 만들겠다, 사립으로 땅을 사서, 이미 기존에 다 물류체계도 확보되어 있고 다 알려져 있고 가락시장에 제일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그러면 가락시장은 어떻게 활용돼야 된다는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도 없이 시장만 옮겨가겠다, 公社 자체만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議會에 이렇게 보고되는 게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충분히 숙의하고 서울시하고도 의논하고 中央政府하고도 의논하고 숙의해서 보고되어야지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보고할 정도로 무르익었습니까?

또 하나는 시장을 앞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500억원 정도

만, 50만평을 서울 근교에 가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社長님께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시장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시장만 덩그러니 어디에다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고요, 500억원, 1,000억원 들여 가지고.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로 개설시키는데 있어서의 비용 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도 않고 시장의 장터 하나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발상 자체가?

저는 좀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議會에도 보고하고 서울시하고도 합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신다면 심각하게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유통마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 6월에 農水産物公社가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실태 및 마진분석을 보면 배추는 마진이 88.3%, 무가 74%, 상추 80.7%, 건미역 57.8% 등등 유통마진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자는 11.7%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公社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유통마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장수입이 지금 원래 계획 대비해서 60.1%로 30억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5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액보다도 주차장수입이 줄어든 것인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과포화상태고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처치 곤란이라고 계속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작년보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분사를 해서 피에스오성이라는 회사에다가 수의 계약을 민간위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수입이 줄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차장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차장수입이 몇 십억원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최소한 몇 억원이 고요. 그러면 그 회사가 그만큼의 이득을 다 가져간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한다, 인력감축을 위해서 아웃소싱한다 라고 했던 구조조정의 의미는 수익을 더 축소시키고 허울좋은 구조조정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公社에서는 이 주차장 관리업체를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채용연령도 65세에서 아웃소싱을 해서는 55세로 낮추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일하던 55세에서 65세 된 직원들 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세요. 아웃소싱 전에 55세에서 65세 직급별 직원수, 연도별로 97년부터만 해 주십시오.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제대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색내기식 보고하시지 마십시오. 하여튼 간에 자료는 내요. 그리고 당장 정리하라고 그래요.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에 대해서 부적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서 과정은 압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대책을 더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시정하겠다 라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행정에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1년 동안 어떻게 나타났는지 답변하시고 자료로도 보고하십시오.

또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겠다는 것을 작년 행감 때 분명히 社長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입 농산물 농약검사 부적합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을 의원들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검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식의 방향이라면, 그리고 그런 식의 허위답변이라면 징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 등급 표준화에 있어서도 불량 농산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거의 대부분 양을 허위로 경매에 부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전체 조치건수의 98%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조치는 1차는 주의를 주고, 2차는 경고를 주고, 3차에 가서야 잘못했을 때 1개월 반입금지 정도로 매우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농산물의 중량을 속이고 잘못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입금지를 시키면 다른 시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어떻게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요.

농산물 포장화 사업이 국고로 44억원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용예산액이 33억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포장재 지원금으로 예산을 44억원을 잡고 있는데 집행한 것이 8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수십억원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몇 년째 이 포장재 사업이 추진된 이후로 계속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는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돈 잘못 쓴 것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대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유발 부담금도 비슷한 경우인데 수입이 8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지금 4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비용을 상인들로부터 많이 걷어서 그 수익을 챙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그에 따른 고가의 행정서비스가 수반돼야 됩니다. 쓰레기 비용을 많이 걷어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반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다 순이익으로 챙기는 식의 방식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대안을 가지고, 불만은 없습니까? 좀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尙俊 幹事, 鄭韓植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鄭韓植;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한 후에 계속 질의를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하지요」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지금 다 하셨지요? 鄭鉉均 委員 한 분 남으셨습니까?
鄭圭鎭 委員님도?

두 분 鄭委員님만 남으셨는데 좀 간결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鄭圭鎭 委員;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입니다.

99년도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주요 문제점하고 대책,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자체에 있었을 거예요. 그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 법인들이 매년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농안기금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대출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鄭鉉均 委員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鉉均 委員; 질의할 것이 많은데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제가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鄭鉉均 委員입니다.

본위원회는 아까 梁敬淑 委員님께서 질의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점은 충분히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 영세농민들이 생산한 야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가락동시장에서 행정조치를 했을 때 따르는 피해, 여러 가지 등등이 다 노출이 됐는데 문제는 구조적인 행정조치 절차나 또는 홍보과정에서, 또 검사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본위원회 보니까 검사과정에서 과연 간이속성검사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여

러 사람을 골고루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소신과 책임감이 없으면 이것도 잘못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社長님께서 엄정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사람 검사하고 싶은데 안하고 건너가면 이 사람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앞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가와 거래한 법인회사에게 분명히 벌칙을 주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마나예요. 마치 구멍난 바구니와 같습니다.

이 農水産物公社에서 아무리 출하자들을 관리한다고 해도 도매시장 법인만큼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거래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자들을 뻔히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매법인 회사들에게 벌칙을 강하게 주어 야만이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유통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지금 조치실적이 1개월 반입금지가 220건에 고발이 7건이라 그랬는데 약 227건인데 실질적으로 정밀검사에서 부적합하게 나온 것은 141건이거든요.

그러면 227에서 141건을 빼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데 조례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잔류농약은 우리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 홍보, 또 검사, 그리고 벌칙,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통괄적으로 한 사람이 마인드를 가지고 끝까지

지 근절해야 됩니다.

또 아까 梁敬淑 委員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한 달간 유통정지를 시켰으면 남은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시장으로 유통시킬 것인가, 아닌가 그런 근절대책까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소상히 답변을 들은 후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중지예 앞서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답변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자산의 특정현금과 예금 216억원과 부채의 수탁보증금과의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수탁보증금이 약 200억원인데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항상 유동자산에 현금으로 있어야 되는 요구불예금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2時 54分 監査中止)

(14時 59分 監査繼續)

○委員長代理 張夏雲;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제가 오전중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분사를 몇 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락동시장의 협소함을 들어 얘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량 추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지 않는 것이 수치상으로 죽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되지도 않는데 왜 자꾸 가락동시장 자체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감사가 상임감사 아니고 비상임감사인데 임명이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니까 아마 자체감사 기능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계획서를 연초에 만들게 되어 있을 텐데 자체감사 계획서하고 자체감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이후에 보니까 예산이 크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구조조정에 있어서 잘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들 답변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앞서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시작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주신 위원님별, 또 질의별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吳世根 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장의 취임 이후 실적 또는 업적과 문제점은 무엇이나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吳委員님께서 다 알고 계

시리라 믿어서 생략을 하고, 현재 남아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문제점은 시장거래물량 232만톤에 비해서 절대면적이 부족함에 따라서 빚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가 지금 배송차량 공간이 거의 없다고 하는 점, 그래서 물류비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의 유통개혁 정책과 호흡을 같이하려면 배송차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면적이 吳委員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채소매장화 돼서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주차에 따른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에 대해 아까 郭委員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사실 시장에서 상거래활동에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은 만일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시장은 제가 볼 때 며칠 이내로 마비될 것으로, 이따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유통인들은 주차요금을 없애 달라고 하고 없앨 경우에 제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시장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역 상하차를 위한 하역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화해야 되는데 팔레트화도 잘 안되고, 또 하역노조들이 많고 해서 물류비용의 고비용 구조가 되어 있다는 점, 또 시설이 개장 이후 15년 됐습니다만 많이 노후화 돼서 지금 보수비용이 많이 들고, 또 직판시장 같은 데

는 위험도 하고 청과시장 같은 데는 땅도 조금 꺼지고 굉장히 어둡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시설에 따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콜드 체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郭委員님이 좋은 질문 주셨는데 결국 신선한 농수산물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물류센터의 기지화, 대형할인점 소매점의 기지화, 수출입 농수산물의 기지화, 전자상거래 기지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스페이스가 좁음에 따라서 상인간에 여러 가지 영역 다툼이라든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 취급하는 중도매인들하고 채소 취급하는 중도매인들간에 배송차량 델 데를 놓고 정말 치열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유통인들의 많은 마찰과 갈등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외에도 사소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간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吳世根 委員; 사장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가 모범적으로 사장으로 취임해서 실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실적에 대해서.

○社長 許信行; 제가 와서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 것은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만들어서 상인들 대표를 전부 오시게 해

서 매달 정기적으로,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여과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림으로써 제가 오기 전까지 시장에서 밖으로 많은 문제가 서울시, 농림부, 여러 군데로 투서, 탄원서, 언론에 고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거의 사라진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또 소리함을 통해서도 아까 130건 이상을 처리해 줌으로써 소위 시장 안에 계시는 개별 민초라고 할까 아주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민원까지,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것도 좌변기로 해서 다 고쳐드린 것 그런 소리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자잘한 문제를 다 해결해 드렸다는 점, 또 양도·양수 15년 동안 해결 못한 것, 그리고 아까 경매부진품목 8개 품목 15년 동안 갈등으로 왔던 것 이 문제 정리한 것, 또 시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서 과거보다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고객감동에서 전화도 친절하게 받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공사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소리는 아직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주차요금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올 때는 15분간 무료였었는데 제가 30분간 무료로 했습니다. 아까 주차료수입이 왜 떨어졌느냐 했는데 사실은 30분간 무료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상인들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을, 현장 70% 쯤 그런 점, 그리고 더 크게는 근본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해 온 점, 또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 큰 대과 없이 제가 잘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만 대과 없이 하고 지식경영시대에 맞게끔 지식경영실적을 10% 까지 내고 있는 점 등 더러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는 서남권 도매시장 소장의 일을 사장이 겸임으로 맡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吳委員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이라고 하면 현재 현장 건설사무소장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의 서남권도매시장건설기획단이 있습니다. 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이 개설된 다음에는 저희들이 가서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은 현재 건설책임자가 직접 나와서.....

○吳世根 委員; 기획단장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社長 許信行; 저에게 그렇게까지 질의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지금 저희 직원들 데리고 가서 속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吳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공사이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기획단장은 서울시가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매시장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토지를 수용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후적지 정비계획을 추진한다든지 이것은 공무원들이 서울市長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제가 비록 공사에 있지만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부지 2만평 확보를 적극 간청을 해서 실현시킨 점 같은 것은 서남권시장의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는 영등포 이전해 가야 될 상권 상인들의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서 상인들 대표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와 상인들간에 가

교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뭇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서울시 기획단 또는 서울시, 공사 모두를 위해서 제가 밑에서 보좌하고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각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장애외품목을 확대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을 하고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장애외품목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지정협의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상장애외가 되게 되면 표준송품장 사용을 지도하고 반입신고소를 2개 정도 설치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8명 정도 전담 운영하고 있는 야간시간대는 6명이 순회점검을 하도록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알타리무하고 거래물량이 큰 품목이 지정되게 되면 거래장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장소 지정문제하고 정산조직을 설립해서 출하자 등 거래관계자하고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지도감독체계를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국단감협의회에서 포장규격을 15kg상자에서 10kg로 내리면서 하역비 인하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원제기 경위는 전국단감협의회에서 뭇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 8월에 10kg로 출하를 결의를 하고 9월에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농림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농수산물공사 이 네 군데에 보내서 저희들이 다 받아서 출하자들 대표하고, 그 다음에 도매법인, 중도매인

들 대표와 연속 협의를 했습니다. 설득도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하고, 특히 하역노조들에게 설득을 해서 단감 10kg짜리 하역비를 현재 160원 받고 있는 것을 10원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합의를 거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제기가 있으면 그때 해결을 하더라도 일단 합의를 도출했다는 이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4년 5월 농안법 파동 이후에 경매에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경매사들 문제가 있는데 전자식 경매 추진현황하고 문제점은 무엇이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자식 경매는 94년 12월 개정 농안법에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도매법인별 품목별로 시행 가능한 것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는 이것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매법인 평가제도 속에다 평가점수로 넣어서 점수를 높여 놨습니다.

문제점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아직 서투르고, 또 전부 사람들을 불러야 되고 이래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은 상인들이 중도매인이나 일부 상인들이 바로 값이 노출됨으로써 예를 들어 잔품처리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 커버를 할 수 없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만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드러난 불만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년 3/4분기까지는 도매법인에 상장되고 있는 52개 품목 모두에 대해서 전자경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수수료하고 판매장려금 인하 관련지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98년 7월 1일, 그러니까 농림부 중앙정부의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 도매시장에서 수수료 5%를 받는 것을 1%포인트를 내리도록 해서 판매출하 장려금을 0.2 내지 0.25 정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유통개혁대책으로 저희들은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것이 위법이다, 농안법에는 지금 7%, 조례에는 6% 상한선만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요율을 내리라고 간섭을 했느냐, 이것은 사업자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여서 경영간섭행위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중앙정부에서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리라고 한 것도 간섭이고 또 올리라고 한 것도 간섭이다, 마찬가지로,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서 도매법인들이 중도매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시장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 가기를 저희들은 내심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공사는 옆에서 협조적인 역할을 할 생각으로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郭順英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매인 양도·양수 건은 좋다, 그러나 서남권시장의 경매제 추진은 오류 아니냐, 물론 질의를 주시지는 않았습시다만 아까 梁敬淑 委員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경매제로 가야 된다 또는 도매상제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또 제가 이것을 주도할 일도 아닙니다. 그렇

게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그때 서남권 도매시장 건설이 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것을 백지화시키고 다시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상대적인 문제였습니다.

郭委員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매상제 허용을 기초로 한 농안법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 저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미 결정이 돼서 공사가 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고 언론으로부터도 질타를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런 진퇴양난에 부딪쳐 있었는데 만일 도매상제 도입을 건의하게 되면 완전 백지화해서 법이 통과된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재설계가 되어야 되고 다시 공사를 입찰해야 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저는 나중에 도매상제가 될 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청과물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제나 경매제나 시설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제가 유통개선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드렸다는 점을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도축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도 약속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2000년 6월 전후해서 옮기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옮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동중인 안성을 제외

한 나머지 3개 지역에 공장이 2000년 이동시점에 맞추어서 가동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郭委員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영향을 받아서 여기도 3개 지역이 건설중단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부천공판장이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중앙회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리적으로 2000년 중간에 이동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며칠 전에 축협중앙회 회장도 만났습니다만 그래도 폐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郭委員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루에 돼지가 3,000두 내외, 소가 300두 내외 이렇게 도축돼서 공급이 되는데 만일 이 공급원을 차단해 버리게 되면 당장에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육류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 또 하나 우리 시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one stop shopping이 안 되면 청과물이나 수산물의 판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의 양곡시장도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하고 같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양곡시장도 없고 축산시장도 없다고 한다면 이 시장은 청과, 수산시장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공급에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으로는 축산시장을 최대한 깨끗하게 유지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대표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협의를 해서 최소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협중앙회로 하여금 여타시설을 빨리 짓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서울

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축산시장이 중단되는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공사의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郭順英 委員; 답변이 통상적이고 업무보고 할 때의 답변이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행감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소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축협 도축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비위생적이고 여기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 년입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옳기네 하고 또 슬그머니 놔두고 하는 상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社長 許信行; 하여간 명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결론을 얻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順英 委員; 전에는 행감 때 질문만 하고 답변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있다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벌써 저도 지방의원 3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한 것을 업무보고라든지 또 만날 때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답변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 양도·양수 문제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 제일 큰 문제, 저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어도 크게 해결한다 하고 상인들이 바랐던 것이 양도·양수 문제인데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상 이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郭委員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도 처음이고 서울시에서도 처음이고 해서 이번에 이것이 잘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각 조합에서 복덕방 행위를 하고 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즉각 받은 돈이 있으면 돌려주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있다면 그것은 없애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도·양수가 끝나면 불법 전대문제도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양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거래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보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기간도 2개월 했고 접수기간도 1개월로 하고, 또 연기해 달라고 해서 연기를 했고 심사하고 해서 지금 과정에 있으니까 그때그때 좋은 지도가 있으면 저희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공리에 끝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도매인들 점포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과 허가권 분리를 조치시키고 신고제도 도입을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트럭판매장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비가림시설 말씀하신 것이죠?

○郭順英 委員; 네.

○社長 許信行; 이것도 제가 오자마자 대아청과 채소 중도매인들, 또 다른 채소 중도매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원망조로

비를 15년 동안 맞으면서 거래를 하도록 놔두었다, 빨리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직접 뛰어서 서울시, 농림부에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설계까지 다 하고 바로 입찰단계까지 왔는데, 1년 동안 시장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발전방향을 연구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100억, 200억 넣어서 국부적으로 해결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것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 유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최종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주차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비가림시설 정도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부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상인들 대표하고 협의단계에 막 들어가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협의되는 대로 郭委員님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문제를 상당히 질타해 주셨는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매인들, 직판상인들 주차료 없애 달라는 말씀을 제가 올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5분 면제 하던 것을 30분 면제를 해 드렸습니다. 만일 없애면 어떨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이 아파트단지화 되어 있고 지하철역이 바로 코앞에 있고 멀리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밤에는 주점이라든가 유흥가도 많이 있고 해서 만약에 주차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장기능이 거의 마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만일 유통인들이 다 원하신다면 그러면 유통인 대표들하고 담판을 벌일 생각입니다. 만일 없애서 시장기능이 1주일 내, 한 달 내에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공사 사장으로서는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통인들이 다 원하신다면 대표들을 전부 오시게 해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해 드리고 무료로 하겠는데 그러면 시장관리는 상인들이 해 주시든지, 마비될 때 저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든지, 거기에 손실이 따를 때 누가 보상을 한다든지, 뭔가 사후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열어야지 지금 완전히 개방한 상태에 우리가 시험 안 해 보고 그냥 열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꼭 받겠다든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금년 12월에 상인들 대표 오시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책임지고 하겠다, 맡겨라 그런다면 공증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개방할 용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별 당기순이익이 많다, 그리고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왜 떨어졌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떨어진 것은 작년 IMF 이후에 상인들의 영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변 임대료의 떨어진 것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12% 내외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임대료를 저희들이 12% 내외, 특히 식당 같은 것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임대료를 12% 전부 낮추어 드렸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도 낮추어서 전부 환급해 드렸고, 주차요금도 15분 무료

하던 것을 30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많은 수입이 줄고 해서, 사실 저는 아까 李亮漢 委員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공사는 수익성 공기업이 아니고 공익성, 수익성 절반 절반 해서 저도 공감입니다만 오히려 고객감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많지 않다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안기금에 대해서, 특히 농협이 제일 많이 가져 갔지 않느냐, 왜 농협이 거래량은 많지 않은데 많이 갖다 썼느냐, 공사의 감독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협이 郭委員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갖다 쓴 것은 사실입니다. 郭委員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안기금은 저희들이 배분을 하지 않고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농안기금을 받아다가 전국 농협공판장 거래실적과 성적에 따라서 배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간도매법인은 지금 전국농수산물법인협회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전국공영도매시장에 배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농협이 많은 것은 농협중앙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락시장이 민간도매법인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높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부산물쓰레기 처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산물 처리시설은 공사비에 대해서 3억 9000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저희들이 안 냈고 주식회사 한국프로텍스에서 자기들이

시험 겸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 다만, 저희들은 냄새가 많이 나고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저쪽 한 쪽에다 장소만 제공을 했고 비용은 공사에서 하나도 내지를 않았습시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에 문제가 있는가 현재로서는 가동이 잘 안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별도 조치라도 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처리관계 질의를 주셨습시다. 쓰레기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처리시설을 더 늘리거나 개선하든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시다.

쓰레기 발생의 근본원인은 郭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배추, 무라든가 다른 채소들인데 일본 같은 데에서는 산지에서 선별포장이 잘 되니까 도매시장에 쓰레기가 발생 않고 있습시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그냥 뽑아서 그대로 신문지에 싸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쓰레기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산지 시장의 여건을 보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처럼 채소 심어서 파는 사람들이 선별포장이 어렵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도매시장으로 그대로 싣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일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오오따시장에 배추도 전부 선별포장해서 박스화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일본의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이 일본이 오히려 실패했다, 왜냐 하면 산지 일손도 부족한데 그것을 전부 선별해서 포장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굉장히 높였지 않느냐, 오히려 가락시장에 산물로 올라오는 것이 더 낮겠다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마늘대는 농

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6개 도매시장인가요, 서울의 도매시장에 전부 위의 대를 자르도록 해서 쓰레기를 많이 줄였습니다만 거기에도 상당히 출하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쓰레기양을 근본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겠고 현재 시설도 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봐서도 결국 확대 발전쪽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식 경매에 대해서 수지식 방식이 아닌 완전한 전자경매방식의 대안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전자경매식은 명년쯤 52개 품목에 대해서는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매사들의 자질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사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느냐, 또 일부 장난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영화방안은 없느냐, 아니면 재교육을 시켜서 공평하게 하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도 와서 경매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사실 공영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봤는데 郭委員님, 우리 공사가 공영화를 하게 되고 봉급만 딱 주게 되면 인센티브도 없고, 또 우리 공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해가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매법인은 그래도 출하자들로부터 상품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높은 값이라도 주려고 도매법인이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만일 경매사가 도매법인에 속해 있지 않고 공사에 있으면 출하자로부터 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양쪽에서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양심 나쁜 사람들이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폐해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되고 해서 공영화문제는 썩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또는 출하자와 소매상, 소비자들의 상호견제 파워게임이 일어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만 경매사들이 도매법인도 모르게 탈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집요하게 추적을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번에도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郭委員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재교육 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으로 받고 꼭 재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가 절대 부족해서 재고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郭委員님, 이것도 공간 절대 부족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郭委員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산지에서부터 소매시장까지 다 되고 있는데 우리는 도매시장에서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공간 속에서 단 얼마라도 늘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역시 공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시대에 부응하는 콜드 체인 시스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李善宰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善宰 委員님께서 시장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문제는 후보지가 어디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저나 또 서울시나 농림부에서 후보지 문제를 딱 마음 속에 둔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지 중의 하나는 아까 李委員님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는데 이 앞에 문정동 다 알고 있는 후보지가 하나, 그

런데 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송파구청장께서 송파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또 두쪽이 나 있다, 그리고 아까 郭委員님 질의 주셨습시다만 민원이 너무 많고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아까 郭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입지가 없습니다, 여기 빼놓고는. 밖으로 나가면 행정문제가 생겨서 구리시장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현재 농림부에서 생각은 서울시는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梁委員님께서 도로문제 말씀하셨는데 농림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충분히 도로문제 다 감안해서 적절한 후보지를 물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수도권지역으로 하면서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대충 그런 선에서 머물러 있지 후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이 앞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물류센터 심의내용을 말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상암물류센터라든가 마포시장 문제는 저희들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유통개선위원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한번 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李委員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물류센터하고 경기장 할인매장하고 마포시장 하고 3개가 있어서 우선 공급물량의 규모도 과잉되고, 또 3개가 같이 겸직을 하게 되면 3개가 다

부실해질 위험성이 있고, 지금 마포시장을 만일 없애게 되면 거기에 지금 120개 정도의 상인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비용도 한 60억 정도 쓰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보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경기장의 경기 이후 수익성사업을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경기장 매장도 없애기 어렵고, 그래서 물류센터는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현재 계획단계하고 집행 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유보하고 경매장 안에 있는 할인매장은 규모는 8,000평 가까이 되지만 실제 주차장 이런 것 빼고 나면 한 3,000평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3,000평인데 그것도 공산품이 대다수 들어가고 한 10%나 15% 지하에 백화점식으로 고급 농수산물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그 경기장 할인매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거기에는 고급품목이 들어가도록 하고 여기 마포시장은 재래시장으로 해서 중저가 품목으로 해서 상호보완을 하도록 해서 두 개를 다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문을 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식형 시리즈는 거기 올렸습니다. 지금 9호까지 나왔고 10호 인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송차량 공간 해결방안이 없느냐,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배송차량에 대한 개념을 제가 유통학 교수들한테서도 별로 읽어본 경험이 없고 언론에서도 어디에서도 배송차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온통 빠져버렸는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이 새벽 4시에서 아침

출근시간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벗어나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실 소매상들 내지 배송, 물건 떼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장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럽시장에 가보니까 오히려 활달합니다. 우리 시내보다도 더 화통하고 대놓고 바로 뽑아가고, 그러니까 시장이 복잡한 데는 시장상인들이 3D업종으로 되어서 굉장히 어렵고 유럽처럼 활달하게 터진 데는 사람들이 역동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해외 조사를 하면서요.

그래서 배송차량 공간문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예외품목 관행을 바꾸면 상인들이 변화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신뢰구축방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11개월 동안 삼자논의를 계속 해 와서 상당히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110개 품목이 이미 거래량으로 따져서는 4 내지 5%밖에 안 됩니다만 이 3개 품목도 110개 외에 추가로 되는 것이니까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다만, 도매법인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는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희들이 사후적인 관리감독, 혹시 탈법행위를 한 다든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든지 물량을 속인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吳尙俊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에서 포장재하고 쓰레기유발부담금 집행이 아주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 지금 대만이라든가 그런 데 선례를 봐서 도매시장에서 포장을 잘해 온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해 온 사람들한테는 벌칙을 주는, 그럼으로써 유도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포장재 지원금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도 잘해 온 데는 지금 장려금을 주고 못한 데는 검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값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과일 같은 것 이미 포장이 잘되고 있는 것 외의 채소 같은 것은 우선 생산규모가 작고 농촌에 아직 그런 출하센터가 기계라든가 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 선별포장이 잘 안되고 농민들의 사고도 그렇고 해서 포장이 이제는 한계선상에 올라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서 꼬집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 예를 들면 산지유통을 농협이라든가 생산자 조직이 과감하게 들어가서 품목별 조직을 해서 영세하지만 농민들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출하센터를 만들고 선별포장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잘 될 것인데 지금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포장장려금을 주는 것으로서는 어떤 한계선상에 온 것이 작년 금년에 저조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깐 좀더 연구 분석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명년에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늘리려고 하면 어떤 근본대책을 마련해

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과 예금이 많다, 高利子를 과거에는 추구했지만 앞으로는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도 이것 챙겼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것은 농협, 수협, 축협인데 서울시에서처럼 다른 경쟁을 시킴으로써 이익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플러스 알파로 안정도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지금 재미있는 것은 시장 안에 농·수·축협이 있는데 거기가 전부 출하하는 사람들 또는 상인들 자기들이 유치를 해서 유치한 실적들이 있어서 보니까 자기들 유치해서 노력한 것만큼 몫으로 해 달라 해서 그렇게 배분을 해 놓고 있더군요.

다만, 안정성 여부는 아직은 농협계통이 안정성면에서 넘버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농협이 현재로서는 제일 안전축에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안전문제는 크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하면 농·수·축협도 저는 결코 5년 앞을 내다봤을 때 안심만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밀히 주시를 하면서 吳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중요한 변수로 감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직원들 종업원의 장기대여생활안정금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택구입자금이나 다른 자금은 몰라도 생활안정자금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업원 장기대여금 제도는 92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 예산으로 지원해 오다가 96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92년도에 1회에 한해서

약 4억 8,400만원을 대출했고 현재 상환할 잔액이 3,5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92년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하고 임차자금에 한해서만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의 장기대여금 조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여금 채권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할 때에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할 때 본인 퇴직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미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서 지급 청구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물류센터를 우리 공사가 직접 운영을 해 볼 수는 없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농림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농안법상 농수산물 물류센터는 국고지원 조건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동 신축은 보류해야 한다, 장기계획하에서 추진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吳委員님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돈이 청과시장의 비가림시설은 101억원인데 여기는 173억원이나 많아서 양쪽 합하면 274억원인데 만일의 경우에 정부가 옹기기로 한다면 이것도 큰 질타의 문제가 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른 판단은 빠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몇 개월 동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吳委員님 말씀을 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수산시장에는 이쪽의 주차건물동 3층이 있는데 1층이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임시매장 같은 것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吳尙俊 委員;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자료 중에서 저도 그렇고 몇몇 위원님들이 휴업한 중도매인에 대한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휴업한 것이 거의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어떤 경고조치나 아니면 사망하거나 이래서 휴업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중도매인들이 운영을 하다가 납품하다가 부도 맞았을 경우도 있는 것이고, 자금이 문제가 있어서 도매법인에 경매를 하지 못해서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질적인 휴업에 해당되고 대금을 완납해서 다시 도매법인하고 거래가 될 때까지 실질적으로는 휴업기간인데 그런 자료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 도매법인의 미결제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그 동안에 장사를 하지 못한 중도매인들 리스트요.

○流通處長 曹永台; 거래실적이 없는 중도매인들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거래실적이 없는 중도매인 중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유를 가지고.....

○吳尙俊 委員; 거래실적이 없는 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디 납품을 크게 하다가 부도를 한번 맞아서 몇 달 동안 자금이 어려울 때 결제를 못해서 거래가 없다가 그것이 해결되고 다시 거래를 하면 거래실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석 달 동안 장사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流通處長 曹永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거래실적 분석을 하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영업을 못하고 휴업하는 경우에 자료가 거래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중의 일부 사람들은 그런 사유로 해서 거래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吳尙俊 委員;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도매법인들이 어느 정도로 잘 움직이고 어느 정도의 업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도매법인하고의 결제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流通處長 曹永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社長 許信行; 吳尙俊 委員님, 제 메모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98년에 비해서 99년 경매율이 왜 낮느냐 하는 질의를 아까 주셨습니까?

○吳尙俊 委員; 네.

○社長 許信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일류 경매율이 98년에 92.1%에서 금년에는 85.3%로 해서 6.8% 포인트가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110개 상장예외품목, 제가 와서 한 20개 정도 추가로 했었고 이번에 3개를 하고자 합니다만 수입과일의 대부분이 상장예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낮아져서 이번에 3개를 더 추가하게 되면 경매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봐 집니다.

다음에는 李亮漢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이제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후에는 결국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하면 되는 것 아니냐,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이사회에서 심의 통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도기여서 직원들의 봉급, 그리고 퇴직금 주는 것들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되어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 동안만큼은 서울市長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과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책임성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뭐냐 그러면 자체에서 이사회 통과하고 나면 옛날에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사회 통과하고 나면 그 책임 자체가 사장님을 포함한 이사회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수반되는 데에서 자체 내부에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인데, 사장님은 어떠신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社長 許信行;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은 수익성 공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법인세 담세율이 대단히 높는데 조세 감면혜택을 한번 시도해 볼 용의가 없느냐, 법인세 감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사가 가락시장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공사가 매각권한이 없고, 또 개설자인 서울시가 도매시장을 매각할 경우에는 감자를 해서 추진하면

법인세 부담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완화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정부 투자 기관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지금 국가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제 수입은 국가에서 감면을 받으면서 지방자치제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면 과세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죠.

○社長 許信行;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는 법인세 그 자체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李亮漢 委員; 네.

○社長 許信行; 저도 그렇게 뉘앙스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李亮漢 委員; 가능하죠. 우리가 법을 고치면 돼요.

○社長 許信行; 법을 우리 조그마한 공사가 어떻게 고쳐요?

○李亮漢 委員; 우리만 공사입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 뿐만 아니라 6개 공사가 있는 것이고, 또 각 지방에도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사들이 합쳐서 단합된 힘으로 나와야 되지 가락시장 혼자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다 건의를 하고 서울시 자체가 정부하고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 서울시가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社長 許信行;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제가 오고 나서 형편없이 줄더라고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도 2/3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법인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거래액의 0.몇 %, 그런데 우리는 거래가 없거든요. 그냥 수

수료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만 받는데 이것을 거래액으로 보니까 조금밖에 안 됩니다.

○李亮漢 委員;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施設管理公團이라든지 都市開發公社 같은 데는 예산을 따서, 법인이 아니니까 실제 부속된 서울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내는 데는 農水産物公社밖에 없습니다. 都市鐵道公社하고 地下鐵公社는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내는 농수산물시장에서 법인세하고는 별도로 그것은 예산적 측면에서 서울市長이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향후로 과거에는 서울市長이 인정해서 예산을 타 쓰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승인제도가 아니고 자체제도 같으면 이것은 일반기업과 똑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 자체는 예산편성할 때 서울市長의 동의를 받으면 그 비용 쓰고 난 뒤에는 접대비 해서 시·군 자체에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의 문제는 서로의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市長님하고 충분히 상의하면 돼요.

○社長 許信行; 알겠습니다. 제가 李委員님께 나중에 자문을 구하고 별도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도매인의 법인화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인들이 세금을 기피한다든지 실적을 노출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법인화되어 있는 중도매인수가 303개, 청과가 201개, 수산이 10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점포가 가족,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도매인 법인전환 신청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장부기장에 따른 지식 부족, 또 세금노출 등으로 해서 신청을 잘 안 받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실 중도매인의 경우는 허가갱신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중도매인간 통합 유도를 해서 법인을 점차, 이번에 몇 개 늘어났습니다. 법인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개발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안전성 검사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따가 鄭鉉均 委員님 답변시에 드리면 알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클럽, LG직매점 등 대형소매점 또는 대형할인점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도매시장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를 주시고, 그 대처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95년부터 가락시장 물량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거의 현상유지입니다. 그러나 95년까지는 죽 올라왔다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계만 놓고 보면 밖의 유통시스템이 발전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절대공간이 부족한 것이 더 큰 요인이고요, 두번째는 다른 유통경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재미있는 것은 지금 백화점의 대형할인점, 그리고 물류센터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경우에는 배추 세 일거리 빼놓고는 여기에서 가져갑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가면 이익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농협도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부정은 합니다만 여기에서 상당한 물량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에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물류센터라든가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허브(HUB)형의 기지를 만들어 주어서 여기에서 쉽게 가야지 자기들이 상인들하고 경쟁도 안 되고 산지에 숙련된 노동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 가서 사야 할지도 모르고 그것 차떼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새로운 유통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아까 허브형 시장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법인들의 상반기 이익이 과다하다, 그래서 수수료 조율을 할 용의는 없느냐, 특혜시비 가능성도 있다, 해결책을 연구해 보라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매법인에 순이익이 많은 이유는 위원님, 제가 작년보다도 법인 수익이 많은지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 집니다.

왜냐 하면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줄었습니다. 3%에서 2.7%로 줄었고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해서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절대액으로 따지면 결코 적다고 볼 수가 없죠.

○梁敬淑 委員; 수수료도 계속 늘고 있어요. 도매법인의 수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社長 許信行;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율입니다. 요율, 5% 받다가 4%로 내려와서 지금은 도매법인이 받아가는 것이 거래액의 2.7% 떼어가거든요. 0.3%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梁敬淑 委員; 내려갔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社長 許信行; 조금요, 지금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李亮漢 委員; 물량하고 가격하고의 변수관계가 있겠죠?

○社長 許信行;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 梁敬淑 委員님도 질문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도매법인들의 당기순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지식형 시리즈로 내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답변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청과나 중앙청과, 동화청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주주비율이 대기업이 60%나 5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목적하고 우리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청과조합 자체가 7.5%, 8%, 5%씩 해서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청과회사 법인을 형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서울청과의 경우 고려제강이 66.7%, 서울전자유통이 33.2%이고, 그 밑에 보면 중앙청과의 경우도 대아건설이 48%, 대원실업이 32%이고, 동화청과는 호정개발이 36.78%로 되어 있고 강동수산도 한 사람이 50% 가지고 있고, 서울건해도 박상헌씨가 95% 가지고 있는데 이 자체의 원천적인 목적은 상인들이 모여서 주주로 형성되어서 각자의 도매청과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에 대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특혜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중도매인들이 일부 지분에 참여한다

면 중도매상과 법인과의 관계도 원활해질 것이고 법인 내의
잡음도 없어질 것인데 95%, 66.7%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
희들이 매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
는 것같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社長 許信行; 李委員님 지금 말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은 그런 비유통인, 오래 장사도 안하는 사람이 자본을 투
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질타도 많이 합니다.

애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산에서 올 때 상인들의 자
본력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냐, 들어온 사
람들도 그 동안에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도 여기 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간 사람도 있
고 바뀐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만일 도매상제가 지금 농안법
이 개정되어서 단계별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 도매상들의
법인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위원님들도 같이 보셨습시다만
중도매인 중에서 거상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도매상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깊이있게 연구가 되면 지금 위
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합니다.

○李亮漢 委員; 상법상에 이 회사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아닙
니다. 그런데 고려제강 같은 회사가 주식을 60~70%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대아청과나 서울청과 같은 데는 최고의 주주가
15.19%, 7.71% 이런 상인들의 형성에 의해서 중도매상들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중도매상과 법인과의 관계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분이 농수산시장 사장을 하시더라도 애

로점을 해결할 수 있고 시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그것도 내 사업이고 이것도 내 사업일 것 같으면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연구가 되어서, 이것을 제강회사나 건설회사가 대주주가 된 것이 물론 당초에 법인들 자본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의 일부를 상인들에게 팔 수 있으면 팔게끔 만드는 것도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公社 입장에서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연구 좀 해 보십시오.

○社長 許信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 10% 미만이라면 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 예산을 통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尙俊 委員; 李亮漢 委員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 동화청과나 한국청과 같은 경우에는 2 내지 5% 사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서 중도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분포가?

○社長 許信行; 그 때 용산에서 큰 상인들이 임원으로 들어 오면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중도매인들은 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법에 못 가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吳尙俊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시 가락동으로 옮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신 이 지분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社長 許信行; 그렇죠. 임원이 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吳尙俊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서남권도 법인을 만들면서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이익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반대의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 법인이 투자한 만큼 이익이 없다고 하면 누가 기존의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각 법인들의 이익이 과거보다 단순 수치로서 높다 줄어들었다 해서 줄어들면 이익을 조금 가져가니까 좋은 회사고, 이것이 아니라 가락동시장 자체로 어떤 물량베이스고 가격베이스고 간에 일정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원칙이 되어야지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이익이 줄었으면 아무 얘기가 없고 이익이 늘면서 너희 너무 많이 벌었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 같거든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을 줄이든지 구조개선을 해서 이익이 늘어난 부분을 냉큼 빼앗아 오면 어느 누가 열심히 비용을 줄일 필요가 없죠. 비용 많이 쓰고 이익 조금 가지고 가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社長 許信行; 吳尙俊 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 올 때 워낙 상인들이 자본이 영세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지만 들어올 때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와서 고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대충 점검을 해 보니까 100억원 정도는 가져야 선도자금도 깔고 또 떼이고 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많냐 적냐, 정상적인 투자 효율은 가져가야 되고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에 비해

서 너무 과분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고, 유통에 다른 사람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꿔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점에서 제가 아까 동감을 드렸고, 또 吳委員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자본이 없으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투자 보상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발전 차원에서.

다음에는 梁敬淑 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시장에 대해서 도매상제는 세계적인 추세다, 출하선택권을 주어서 효율화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경매제를 끝까지 고집했느냐, 자체 평가를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梁委員님, 서남권시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유통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물론 도매상제냐 경매제냐 하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검토되었습시다만 그 때는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정을 해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더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매상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를 해 보니까 도매상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안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리고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경매제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시설의 기본계획은 모두 백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백지상태에서 재입찰이 되어야 되고 재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매상제를 가야 되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경매제를 위한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만일 농안법이 통과가 돼서 도매상제를 도입해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또는 국부적으로라도 농협 빼놓고는 그 시설 내에서도 우리 나라 청과물의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일단은 건설을 계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백지화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때 유통개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해 올렸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는 저는 동감입니다.

또 앞으로 농안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나왔을 때 李委員님이나 吳委員님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도매상제로 가게 되면 법인화하는 문제 이럴 때 새롭게 한 단계 유통을 더욱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梁委員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등포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다 이동할 것 같으냐, 아니면 일부 소매시장으로 남아서 2개 시장이 병립함으로써 효율을 떨어뜨려 제2의 구리시장화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세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2개의 점포, 그리고 배송차량이 배려되지 않는 도매시장, 그리고 트럭판매장이 적고 주차장이 적고, 또 그 안에 물류의 흐름이 원웨이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 현재 그 시장에 영등포상인이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렵다고 이미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도매상제가 됐든 경매제가 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

제이고 일단 1,000여 명에 가까운 영등포상인들을 다 넣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영등포상인 대표들과하고 두 차례 간담회도 협의회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논의를 해 갑니다만 영등포상인 대표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저렇게 2~3년 전부터 출발한 것이니까 지금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최소한 2만평 이상은 늘려주어야 우리가 들어가 세 하는 분위기라도 만들지 2만평 이상 안 만들어 주면 아예 우리는 전부 안 들어가겠다, 그 사람들이 솔직히 까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경매제가 됐든 도매상제가 됐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장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서울시 당국에, 또 기획단, 또 서울시 고위층에도 계속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애걸복걸하다시피 한 6개월 동안 설득도 하고 자료도 제시해 드리고 상인들 입장도 전해 드리고 해서 겨우 겨우 2만평 추가부지를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만평 추가부지를 확보했을 때 그러면 다 들어갈 것이냐, 그래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2만평을 늘려도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사실 제가 무리를 안고 오늘 가락시장 발전계획을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이 서남권시장, 구리시장 전체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를 드린 것인데, 또 여러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평소의 의견을 미리 협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민의 대표니까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시장이 허브시장으로서 좀더 확대가능성만 있다 하면 영등포의 거상들, 그리고 청량리의 거상들, 여기 시장 안의 거상들, 그리고 구리시장의 거상들 이러한 거상들이 아마 법인화해서 상인자본으로서 허브시장은 들어가고 중소도매상 내지 중도매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서남권시장이나 구리시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허브시장을 지음으로써 저쪽이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상은 그렇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영종도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방의 공항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듯이 오히려 더 촉매작용을 일으켜 줄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서남권시장과 구리시장, 이런 시장을 도매시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梁委員님이 항상 주장하신 도매상제 같은 것이 현실적으로 더 쉽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중소상인들이 들어가고, 또 가락시장에서도 떨어진 중소상인은 그리 들어가고 수도권에 있는 거상들이 허브시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간에 질서의 재편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梁委員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매시장 문제는 농협공판장을 하나로클럽화해서 대형소매점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고, 후적지 정리를 서울시가 과감하게 하게 되면 구리시장과 청량리시장과 같은 그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든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가락시장 확대개편문제로 우리 梁委員님이 모처럼 강한 질타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또 梁委員님 말씀 듣고 보면 보고를 드리지 말았어야 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또 여러분들 평소에 제가 보고드리면 왜 사전에 협의를 안 했느냐 이러시니까 제가 어느 쪽으로 서야 할지를 잘 모

르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미 市長님께 보고를 한 것이고, 또 농림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고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도를 해 주신다고 하면서로 민주적인 협의 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소박한 생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후도 관리공사에 있으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제가 앞서서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끌고 나간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년간 연구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겸허하게 유통개선위원회도 통하지 않고 공사 사장으로서 市長님께나 농림부에 조용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한정된 내용이지만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잠깐만요, 지금 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까?

○社長 許信行; 아까 성급한 보고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셨는데.....

○梁敬淑 委員; 내용이 어느 정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는 합의가 된 것인지, 지금 정도의 보고로는 그것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부지이용계획도 큰 방향에서 설정되지 않는다면 시장 하나 더 생기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우려를 했던 것이지 議會에 보고하지 말 것을 보고한 것인데 마

치 우리 議會를 특별히 생각해서 보고해 준양 지금 답변하고
계세요.

○社長 許信行; 알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
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통마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배추마진이 83% 정도 나왔는데 공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마진 축소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
다.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남쪽에서 배추를 한 트럭
싣고 오게 되면 뽑는 비용, 실는 비용, 또 수송비, 오면서 드
는 비용, 그리고 중간유통인들이 갖는 자기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 또 시장, 소매상 과정을 죽 보니까 대충 100여 만원 가
까운 고정비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듭니다, 5톤 트럭으로
봐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태풍 오기 전에 시장에 배추 한 톤
트럭 경락값이 100만원 안팎, 경우에 따라서는 60만원 내지
70만원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가격이 물류비용, 또 중간상인들의 이윤까지
전부 포함한 어떻게 보면 고정비용에 가까운 그런 비용을
1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쓰게 되면 유통마진이 거의 100%까
지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83.3% 나왔던 것은 그때 올라태풍 이전에
농민들이 100원씩 농장에서 받고 또 여기 와서는 일부 내버
리기도 하고 아주 그때 과잉으로 문제가 됐던 그런 시점에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도 반성을 합니다만 특수한, 농민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유통마진 자체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경솔했지 않는가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제가 실무진에도 질타를 좀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아침에 상품이 한 300만원 정도 갑니다, 중품이 200만원 정도 가고. 그러면 200만원 이상만 가도 유통마진율은 한 56%, 57%, 6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판매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마진은 순간 순간 달라집니다. 83.3% 나온 것은 제일 불리한 시기, 농민들이 제값을 받지 못한 시기에 나왔던 것인데 그것이 사실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배추물량이 남지를 않고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거의 떨어지는 선에서는 걱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진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마진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5톤 트럭보다는 좀더 큰 트럭, 10톤이나 15톤, 20톤이나 지금 선진국처럼 수송차량을 대형화해서, 대형화하게 되면 물류비용, 수송비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봐지고 배송차량이 쉽게 나가게 되면 소매상들이 고통받으면서 먹는 마진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허브형 시장으로만 간다고 하면 배추 같은 물류비용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현재 상황하에서 배추 유통마진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차장 관리비용과 수입에 있어서 왜 주차수입이 많이 떨어졌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梁委員님, 제가 올 때 주차료가 15분 면제하고 15분 이후에는 요금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것을 배로 늘렸습니다. 30분 무료,

그리고 매 10분마다 500원씩 받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거의 절반으로 한 10억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금년말쯤 해서 아까 郭委員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요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과 수입을 거의 뚝뚝으로 가지고 가면서 차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주신 것도 있고 해서 금년 말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 나간 직원들에 대해서 채용연령이 낮아짐으로써 노령화된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梁敬淑 委員; 자료 왜 안 가져옵니까?

○社長 許信行;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역 전에는 55세 이상이 93명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져서는 72%. 그런데 후에는 이것을 조정해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정년연장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57세로 되어 있는데 주차요원들께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고용을 하다가 이번 분사와 함께 조정을 했는데 일의 능률도 올리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만, 나가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나가신 분들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드리도록 한 것 이외에는 크게 보상을 못 해 드린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梁敬淑 委員; 지금 채용연령을 55세 이하로 조정한다 그랬는데 5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69%예요, 현재 회사에 말입니다.

○社長 許信行; 55세에서 62세가 69%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할 때 연령을 대폭적으로 낮추겠다 라는 것이 큰 주장의 하나였어요. 그렇지요?

○社長 許信行; 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지금 오히려 용역 전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0명 정도 줄어든 것인데요.

○社長 許信行;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시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때는 梁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좀더 과감하게 내리고 싶은데요. 사실 애초에 이 사람들을 좀 나이가 많으신 분으로 모집한 것은 그때가 IMF 전입니다만 고령화된 사람들에게도 취업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서울시 복지차원도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치다 보니까 기준이 바뀌기는 했는데 지금 梁委員님이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채용을 할 때 그런 점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리고 주차장 수입과 유지비용이 비슷하게 나오고, 차량을 관리하는 정도의 의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왜 올해 예산편성할 때 주차장 예산을 50억원이나 편성했습니까? 그런 취지였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社長 許信行; 작년엔 제가 오기 전에 그랬지요.

○梁敬淑 委員; 예산편성 했을 때는 50억원을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게 30억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社長 許信行; 梁委員님, 제가 작년 10월에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조치를 취했지요, 또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서 당초 예산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梁委員님께서 안전성 문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鄭鉉均 委員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성 강화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책강화 효과는 무엇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이후 달라진 내용과 성과는 무엇인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梁敬淑 委員;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왜 이렇게 늦게 가져옵니까?

○社長 許信行; 제가 자료만 올려드릴까요?

○梁敬淑 委員;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내라 그랬으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지금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로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社長 許信行; 저희들이 제일 중히 여기는 감사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지금 議會에서 요구한 자료에는 내·외부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내라 그랬을 때 議會의 감사조치는 넣지도 않았어요.

○社長 許信行; 저희들이 자료를.....

○梁敬淑 委員;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議會의 조치사항은 있지도 않다니까요.

○社長 許信行; 그것은 좀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梁敬淑 委員; 서울시하고 자체감사만 중요하고 議會의 감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社長 許信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梁敬淑 委員; 기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돼 있잖아요?

○社長 許信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여러분이 제출한 이 감사자료 제출서에 아예 빠져 있던 말입니다.

○社長 許信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생각이 못 미쳤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議會 감사는 아예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고방식 속에. 議會에서 지적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고려 자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뭐니까? 감사자료 88쪽 보세요, 있는지.

○社長 許信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농산물 검사에서 부적합품이 거의 없다, 작년에 한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 검사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입농산물은 통관할 때 검역기관에서 1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保健環境研究院, 우리 가락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검사소에서 104건을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부적합 품목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公社에서 실시하는 간이속성검사로는 적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락농수산물검사소에서 자체 검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정밀검사를 실시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검사를 실제로 한 자료를 가져와요, 여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지금 안전성검사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달라진 점을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부적합 발생률이 급감했다, 그래서 작년에 0.9%에서 올해는 0.16%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순한 통계치만 제시할 게 아니라 안전성검사를 강화했는데도 떨어졌다면 분명히 성과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안전성검사를 횡수도 적게 하고 추출도 적게 했다고 하면 그것은 커다란 성과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강화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社長 許信行; 자료를 즉각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梁委員님께서 농산물 등급 표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반입금지를 하는 것으로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시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수입농산물 농약검사 했습니까?

○社長 許信行; 우리 간이검사에서는 안 잡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울시 保健環境研究院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梁敬淑 委員; 그런데 부적합한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보고 되어 있습니까?

○社長 許信行; 104건인가 검사를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수입농산물에는 전혀 농약검출이 안 났다는 것이네요?

○社長 許信行; 거기 104건 검사 중에서는.....

○梁敬淑 委員; 그러면 오히려 우리 나라 농산물보다는 수입 농산물을 많이 먹어야 안전하겠네요, 이 통계수치대로 한다면?

○社長 許信行; 글썬요, 104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사소에서 합니다, 우리 검역소에서요. 그리고 정밀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검사한 것에서는 나오지를 앓았습니다.

(張夏雲 幹事, 鄭韓植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鄭韓植; 잠시만요, 이 자리에 農産物檢査所長 나와 있습니까?

○社長 許信行; 안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거기에서는 정밀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간이검사를 합니다.

○委員長 鄭韓植; 검사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社長 許信行; 바로 우리 같은 빌딩 1층에 있습니다. 좀 오라고 할까요?

○委員長 鄭韓植; 아니요,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고 잠시 정회할 때 참고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네.

그 다음에는 포장화사업 지원금 집행내역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산지의 선별포장이 이제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農林部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예산에서 대폭 줄이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유발 분담금에 대해서도 수입은 8억원이고 지출은 4억원 정도 돼서 수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 대안은 무엇이나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포장화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책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梁委員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경매부정은 불량농산물에 대한 행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적발하면 1차 적발시에 우선 주의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경매제를 도입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매부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능에 커다란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경매부정이 음성적으로,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까지 저질러진다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고 議會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1차에는 주의를 주고, 두 번째는 경고를 주고, 3차에 가서 좀 강하게 한다 라고 하면 경매부정이 없어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부정이나 불량농산물에 대한 행정조치나 또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나 생산지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이러한 부정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또 법인과 연결된 수집상이라든지, 또 경매사들의 결탁이나 반발,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로비 이런 것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公社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간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근본적인 데서부터 뒤흔들리는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公社가 대책을 미온적으로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심한 경우 社長님도 아시겠지만 公社 직원들이 다 법인에

갈라져서 소속돼 있다느니, 법인들이 公社 직원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법인들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97년에 76억 원이었던 것이 98년에 112억 원이고, 자기들이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물량이 더 줄었고 상장수수료가 낮아졌다느니 뭐니 많은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6월 현재 114억 원이에요.

그런데 公社 수입은 현격하게 점점 차이가 나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 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 커다란 바람직한 대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형태라든지 구조 자체도 제대로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서 청소 깨끗이 하고 이것은 오히려 부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시각에 따라서 다 중요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매제 자체에 대해서 상장품목을 더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경매제 부정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또 부당한 법인들의 이득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농안기금을 갖다 쓰는 것을 봐도 수백억씩 해마다 갖다 쓰고 있어요, 법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장수수료도 10월 현재 상장수수료만 법인이 받아먹은 것이 714억 원이에요. 714억 원 상장수수료 받아서 100억 원 조금 넘게 이득 남긴다는 것도 우리는 믿겨지지 않아요. 이것이 제대로 된 보고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600억 원씩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수수료 칠백몇십억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물론 6월 통계와 10월 통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 120억원 내지 130억원 난다고 하면 500억원 이상이 법인의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 자료만 봐도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감시, 그리고 기금이 라든지 중앙정부의 차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다가 제대로 유통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社長 許信行; 저희들이 그런 면도 잘 하겠습니다. 梁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쪽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梁敬淑 委員님, 시간이 상당히 흘렀으니깐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증지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57分 監查中止)

(17時 07分 監查繼續)

○委員長 鄭韓植;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지금 張夏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만 남아 있죠?

○社長 許信行; 아닙니다. 두 분 위원님,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도매시장 법인 감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서 감사는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했습니다. 적출내용은 거래보증금 운영관

리가 부적정하다든지 무자격자가 경매에 참여를 한다든지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지 않는다든지 모자를 착용하지 않는다든지 등 해서 43건 적출을 했습니다. 주의가 8건, 경고가 17건, 과징금이 3건, 시정명령이 5건, 개선공고가 10건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10월 26일자로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과시장 법인에 이익이 많지 않느냐, 농안기금의 특혜가 아닌가,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鄭鉉均 委員님께서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또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에 鄭委員님께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성에 대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금년에도 계속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많이 해 왔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크게 다르게 한 것은 검사건수를 작년에 1만 5,000건 해 오던 것을 鄭委員님 지난번 감사에서 질의 주신 이후에 10만건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우선, 건수 자체를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장비도 1대 가지고 있던 것을 4대로 늘렸고, 사람도 전담요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검사시간을 3시간 하던 것을 2시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서울시 保健環境研究院이 우리 공사 좁은데도 불구하고 건물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해서 사실은 1년 사이에 서울시 저희 공사가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과정에서 일어나는 편견, 조사자의 편견은 없느냐, 엄정한 지도책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출하자 이름하고 지역들이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그

것을 봐서 코드화한다든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만일 그 속에 이름이 자기 지역이라든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개연성은 무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위에서 지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법인 회사에게 벌칙을 주어야 한다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법인들 얘기 들으니까 자기들이 수많은 출하자가 오는데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 하나 점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鄭委員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고리를 묶을까, 만일 도매법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가려내서 안 받고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로서는 정말로 좋죠.

그런데 출하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엄청난 출하자이고 바뀌고 이러니까 법인들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력은 많이 감축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나를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 문제는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2회 처리건수를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부적합에 대해서는 1개월 반입금지 220건 고발을 했고, 조치는 7건이고, 부적합품 발생건수는 14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합 농산물이 타 시장에도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검사소에서 한 것 79건이 220건 속에 포함되어 있군요.

○鄭鉉均 委員; 내가 지적한 사항은 보고서에 부적합 건수가 141건인데 조치실적을 보면 227건이어서 왜 이렇게 많나를

묻는 것입니다.

○社長 許信行;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적발된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鄭鉉均 委員; 서울시 어디에서 적발한 것이요?

○社長 許信行; 保健環境研究院 정밀검사에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주셨는데 홍보, 검사, 벌칙을 총괄적으로 강화해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팸플릿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절대책인데 전국 18개 도매시장에 전부 부적합 나온 것을 통보를 해 줍니다, 즉각. 그리고 거기에서 통보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바로 수탁금지 지시를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鄭韓植 委員長님께서.....

○鄭鉉均 委員; 사장님,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特別市農産物殘留農藥檢査및이에따른損失補償등에관한條例를 볼 것 같으면 제6조 손실보상 등 해서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 상·하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급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원칙적으로 본위원회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된 데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社長 許信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밀검사까지 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을 경우.....

○鄭鉉均 委員; 아니지요. 여기 제6조에 보면.....

○社長 許信行; 손해가 나니까.....

○鄭鉉均 委員; 그것이 아닙니다, 社長님. 社長님이 잘못 파악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 조례에 보면 제6조제2항에 정밀검사 결과, 그러니까 간이검사 말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폐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 및 상·하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社長 許信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社長 許信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원칙은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鄭鉉均 委員; 그렇지요?

○社長 許信行; 네,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단든지, 아직은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해 가지고, 특히 금년 말까지 아마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鄭鉉均 委員; 이렇게 조례를 애매모호하게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시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로 규정해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社長 許信行; 그러니까 명년부터는 안 주는 것으로.....

○鄭鉉均 委員; 내년부터는 안 줍니까? 이것은 한시적입니까?

○社長 許信行;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이해를 거꾸로 했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리고 제8조제1항에 보상금 환수부분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사기를 한 다든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流通情報處長 李宗根; 출하주가 운송비를 실지로 1만원 들었는데 20만원 들었다든가 그렇게 잘못 신청해 왔을 때 나중에 그것이 적발이 되면 그것을 다시 다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鄭鉉均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아주, 제삼자가 보기에겐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환수하는 쪽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하는 것같이 됐어요, 표현이.

○社長 許信行; 제가 보기에도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이 조항이 좀 잘못됐고요.

○社長 許信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한다는 말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렇지요?

○社長 許信行; 네.

○鄭鉉均 委員; 표현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거듭 얘기했지만 잔류농약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동원돼야 됩니다.

아까 제가 1층에 간이검사소에 가서 流通處長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산물 검사 안전원인가, 검사 안전원

입니까?

○流通情報處長 李宗根; 안전성 검사원.

○鄭鉉均 委員; 안전성 검사원, 제가 좀 생소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하자들을 대면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社長님 이하 處長님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절대 그런 부정이 개입되지 않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회사에 대해서 제가 페널티를 주라는 얘기는 農水産物公社 운영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조례상으로 안 될 것 같고 우리 農水産物公社 운영규정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출하자들하고 계속해서 당신들이 법인회사하고 1년에 몇 번이라든지 그런 것이 적출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적인 벌칙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운영규정에 두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운영규정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社長 許信行; 평가에 넣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

○鄭鉉均 委員; 평가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분명히 법인회사에게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社長 許信行; 적출된 사람들 리스트를 우리가 작성하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평가에 걸리면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社長 許信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이상입니다.

○社長 許信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鄭韓植 委員長님께서 유동자산의 특정현금예금

과 유동부채의 수탁보증금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정현금예금은 자산쪽이고 유동부채 수탁보증금은 부채로서 아마 대변·차변의 계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돈이 지금 8억 9,000만원이 있고, 과오로 생겨서 저희들이 돌려주어야 할 그런 돈이 연말에 한 200만원 정도 생겨가지고 아마 8억 9,200만원 정도 차이가 거기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제 질의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얘가지요. 아니, 특정예금과 현금이 왜 그렇게 많냐 이거지요. 많은데 혹시 그것이 예수금이라서, 통상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많은지?

○社長 許信行; 아닙니다.

○委員長 鄭韓植; 아니면 가용재원인데도 그렇게.....

○社長 許信行;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돌려주어야 할 것들이지요. 만약에 그 사람이 물러난다든지, 또 작년처럼 IMF 때문에 우리가 12%로 낮추어 준다든지 그러면 또 그 12%에 해당되는 것을 보증금이니깐 돌려주어야 되고, 그것은 빚이지요. 그러니까 상인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張夏雲 委員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안계시는군요.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鄭韓植; 답변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지금 보고드릴까요, 아니면 오시면.....

○委員長 鄭韓植; 답변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張夏雲 委員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설립된 분사의 운영실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

다.

저희들이 주차관리, 수위, 운전 이렇게 묶어 가지고 피에스 오성이라고 하는 쪽에 분사를 했었고, 옥내 청소하고 방역에 대해서는 TS세원이라고 하는 쪽에 분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경관리는 그린조경이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피에스오성에는 138명으로 돼 있고, TS세원에는 48명, 그리고 그린조경에는 1명의 인력이 돼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대부분 우리 퇴직 직원들이 분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는 완전 자유스럽게 공개입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의 거래량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은데 왜 협소하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몇 번 말씀 올렸습시다만 원래 가락시장 기본설계 상으로는 1일 4,980톤씩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8,000톤씩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한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때문에 그렇게 주춤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밖에 물류센터라든가 대형할인점 또는 전자상가라든가 직거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다소 영향을 주었지 않은가,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설령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락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절대물량은 이 이상을 넘어서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99년도 자체감사 계획과 자체감사 실적은 무엇이나, 이것은 별도로 제가 이따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예산절감 등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분사한 것 말고, 분사는 우리 예산이 나감

니다만 그것 말고 순수하게 정규직이 29명 나갔고, 임시직이 27명 나가서 연간 13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조조정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많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郭順英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鄭韓植; 郭順英 委員님.

○郭順英 委員;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인별로 주차장을 나눠 먹기식으로 새끼줄 쳐 놓고, 또 철조망을 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뭐냐 하면 뒷쪽에 트럭판매장, 과일유통인과 채소 유통하는 사람들 자리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얘기인데, 트럭판매장이 아니고 저쪽에 주차장을 자기네 땅인 양 딱딱 막아 놓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 줄어드는 이유도 한번 들어오면 이것이 소통이 안 돼요. 한 마디로 불편하니까 여기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社長 許信行; 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저쪽에 수산시장이 그렇습니다. 수산시장은 아주 콘크리트를 갖다 놓고 말뚝을 박아 놓고 있어서 계속 건의가 오고 있습니다.

○郭順英 委員; 봤어요.

○社長 許信行;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건해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경매가 뒤에 된답니다. 그러니까 강동수산이 먼저 하게 되면 자기 주차장을 다 차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올 자리도 없고 주차할 자리를 뺏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내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뒤에 경매를 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郭順英 委員;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社長 許信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참 대단히 이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쪽에는 좀 덜하지요. 좀 덜한데 수산시장은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郭委員, 역시 이것은 스페이스를 늘려야 되고요. 또 지금 현실적·단기적으로는 상호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싹 없애라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삼자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채소시장이나 청과시장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삼자협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과일중도매인과 채소중도매인들도 배상차량 스페이스 때문에 굉장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鄭圭鎭 委員.

○鄭圭鎭 委員; 鄭圭鎭 委員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社長님 자세한 보고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점도 많고, 또 해결을 해야 될 문제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21세기 도매시장은 우리 국민생활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유통기구로 발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상에 문제점을 보니까 시장의 시설측면, 또 운영측면,

도시환경측면, 미래지향적인 측면, 발전방향에 보니까 확대이전 건설방안까지 나와 있는데 확대이전 건설방안은 지금 단계에서는 농수산물센터에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잠정 수립만 해야지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밖으로 노출할 문제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자체적인 평가, 자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는 쪽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염려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50만평 이상의 대지를 구입해서 그리로 이동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아마 요원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 경제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제 나름대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시장운영 측면에서 반입·배송 차량 진입공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외곽을 배회하고 문정로, 탄천로, 남부순환도로 등을 점유해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차량들을 전문 수송업체로 육성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 전문수송업체를 육성해서 부문별로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수송업체를 육성할 필요는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하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사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지금 도매시장 유통의 성격변화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시장 외 유통경로가 지금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외식업체에서 전국적인 체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도매시장의 보완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물류센터로부터 구입이 아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가, 중도매인들의 법인화로 규모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매시장의 종합식품센터화를 추진해서 신선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까지도 널리 취급해서 도매시장 이용자들에게 구색 맞추기와 적절한 가격 제시로 다른 유통기관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괄구매형식 이것에 대한 견해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許信行;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전계획은 노출을 가능하면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께 자료드린 것이 어떻게 비칠지, 또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보안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입·배송차량 공간절대 부족에 대해서 전문수송업체 육성 필요성 문제는 제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니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대만에 가보니까 전문수송업체 차량 같아요. 같은 이름이 쓰여진 차량들만.....

○社長 許信行; 농협차 아니던가요? 각 협동조합의 이름이 아마 적혀서 왔을 것입니다.

○鄭圭鎭 委員; 그래서 부류별로 신고 다니더라고요.

○社長 許信行; 대만은 농촌에 협동조합 출하조직이 잘 발전되어 있어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청과의 경우에 85%가 협동조합 계통출하입니다.

○鄭圭鎭 委員;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최선의 방책을 이 안에서 강구하다가 필요시에 읊기더라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분

히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여기에서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언젠가는 다른 데로 갈 텐데 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다 말이죠.

○社長 許信行; 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의 성격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경변화에 대응책.....

○鄭圭鎭 委員; 전문수송업체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하셔서 다음 기회 있을 때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社長 許信行;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동감입니다. 대응책, 아까 보고도 그런 데 대한 위원님들께 보고니까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張夏雲 委員.

○張夏雲 委員; 감사 임명 추진을 빨리 해서 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감사실장이 직급이 너무 낮지 않나요? 구조조정된 여파로 인해서.....

○社長 許信行; 그것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500인 이하 직원이 있는 그것은 市長이 임명하도록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임명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2급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실장 별명이 본인한테 죄송한데 별명이 진뚝개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직급의 고하에 관계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로 보완해서 착오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것은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있어서 감사실장의 직급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이야기드리고, 지금 감사실장 잘 한다고 하지만 그 감사실장이 계속 감사실장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잖아

요.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도 지금 감사실장처럼 항상 잘 하라는 보장은 없는데 직급이 조금.....

○社長 許信行; 張委員님, 지난번에 구조조정 때 내려온 것이 감사실장은 팀장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張夏雲 委員;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社長께서 계속 허브기능을 갖는 중앙도매시장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문제가 가락동시장이 지금 그런 역할들을 일정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락동시장을 허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허브기능을 갖는 중앙도매시장이라면 서울시가 그것을 붙들고서 그것을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프랑스 런지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동떨어진 외딴 곳에 도로망 구축해서 고속도로 죽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령 서울 주변 어디에서 했을 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가락동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허브의 기능을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하고 그런 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중앙정부에서 집중 투자하고 그 허브기능을 갖는 중앙도매시장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놓고 접근하는 2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가락시장이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개념들로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나중에 허브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납득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어요.

○社長 許信行; 현재 농림부 생각은 지금 張委員님이 지적해 주신 후자의 경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 런지스시장은 왜 30km 정도 떨어져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드골공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지스시장은 연간 취급물량이 170만톤임에도 불구하고 70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유럽의 허브시장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공항 옆에다 세웠지 파리를 경시하거나 토지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에도 2만 2,000평인가 중앙시장이 저쪽에 42만평으로 나가는데 거기도 한 1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나라는 허브기능이 수도권을 끼고 있어야지 밖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중심에서는 한 30km 내외 정도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이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만 봐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鄭韓植; 감사종료에 앞서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98회계년도 제14기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자본금이 약 3,110억원, 당기순이익이 약 104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공익법인으로서 납입자본 이익률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약 100억원이면? 어떻습니까,社長님?

○社長 許信行; 계수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월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운영하고 남으면 어디에다 별도로 처리할 곳도 없고
하니까 다음으로 죽 이월을 해오다 보니까.....

○委員長 鄭韓植; 좋은데요, 공공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
3,10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원이 났다 이것은 납입
자본 이익률이 약 3%를 상회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이 과다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
고,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을 이익
준비금으로 처분을 하셨더라고. 이 이익준비금을 어디에다 쓰
시려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했는지도 알 수가 없겠고, 이
렇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지 말고 시장사용료하고 임차료를
낮추어 주어야죠. 어떻습니까?

○社長 許信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검토가 아니라 본위원의 논리는 그런데 귀
사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社長 許信行;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장님이 지적하
셨으니까.

○委員長 鄭韓植; 그 다음에 각 도매법인의 납입자본이 보통
평균 약 50억원입니다. 그런데 도매법인의 재무제표를 봤더
니 총 매출액이 전부 다 상장수수료란 말입니다. 그렇죠, 거
의 다가?

○社長 許信行; 네.

○委員長 鄭韓植; 그런데 납입자본 이익률이 거의 다 20%
안팎이에요. 이것 또한 대단히 높다 말입니다.

그래서 납입자본 5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보통 10억원 안팎
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또 매출액 말고 일반관리
비를 보면 상당히 높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영업비용이.

영업비용이 너무 높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에서는 도매법인에 어떤 지도권한이 전혀 없습니까?

○社長 許信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입금은 5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출하선도금이라든가 운영자본,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법인별로 따라서 다릅시다만 50억원 이상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억원 정도 가지고 움직인다고 봅니다.

○委員長 鄭韓植; 그래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총 자산 100억원이면 어떻게 1년에 10억원씩 이익을 냅니까?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요새 그렇게 좋은 장사 있으면 누구나 다 하죠? 정말 우리 나라 기업 중에서는 이런 기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산총계가 100억원이라 한들 10억원의 이익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얘기에요. 도매법인이 이익이 올라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장수수료를 낮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장수수료를 낮추든지 시장사용료나 임차료를 올리든지 해서 그들로 하여금 적정이윤을 남기게 하고 오히려 소비자로 하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議會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는데 상장수수료를 낮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금 상장수수료가 탄력 적용이죠?

○社長 許信行; 상장수수료는 5%에서 4% 범위로.....

○委員長 鄭韓植; 상한선만 정했지 하한선은 안 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社長 許信行;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낮추는 것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이것은 장기적으로 공사하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社長 許信行;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공사도 이익이 많이 남아, 도매법인도 이익이 많이 남아, 죽는 것은 소비자, 죽는 것은 서울시, 이것은 공사하고 議會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공사도 이익을 적게 남기고 시장상인들 임차료를 낮추고 도매법인도 이익 적게 남기고 상장수수료 낮추고 이래야 뭐가 되지 이렇게 많이 남겨서 공사도 장사, 도매법인도 장사, 이것은 누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알겠다고요. 우리 議會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매법인도 지금 지정하는 법규만 나와 있어요. 변경에 대한 법규는 안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자손만만대 할 수 있는 것이 도매법인이야. 도매법인에 자유경쟁체제 도입방안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도매법인을 잘 운영을 시켜서, 이것 한번 따놓으면 자손만만대 매해 10억원, 20억원씩, 사실 이것 접대비나 일반관리비 따지면 더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유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도매법인 자체를 경쟁 붙여서 들어오도록, 물론 우리 議會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社長 許信行;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吳世根 委員님.

○吳世根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公社 社長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실적과 문제점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공적

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문제점 중에 대형차량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2만 2,200대라고 했던가요, 한 달이니까?

○社長 許信行; 반입차량 말입니까?

○吳世根 委員; 네, 반입차.

○社長 許信行; 반입차가 한 1,600대에서 2,000대 정도, 배송차량이 한 6,000대에서 1만대 정도, 하루에 들어오는 전체 차량은 한 4만 4,000대 정도 됩니다.

○吳世根 委員; 그러면 대형차들이 경매 전에 반입이 가락시장에 잘 안 됩니까?

○社長 許信行; 오후에 지금 이 시간부터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9시, 10시쯤 되면 많이 늘어나고 경매도 시작돼 가면서 밤 12시에서 새벽3시까지가 피크타임입니다.

○吳世根 委員; 차량이 가락시장에 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까?

○社長 許信行; 반입차량은 거의 반 정도 다 차버리고요. 한 7,000톤 이상만 들어오면 밖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출하차량만 해서요. 배송차량은 못 들어오고요.

○吳世根 委員; 거기에 그러면 운송차량 소통관계, 반입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지요?

○社長 許信行; 어려움이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社長 許信行; 그래서 면적이 절대적으로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사람을 배치시켜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흐르게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근본적인 개선은 공간을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리고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습기랄지, 야간에는 어둡고, 주간에도 어둡습니까?

○社長 許信行; 주간에도 어둡습니다.

○吳世根 委員; 주간에도 어둡습니까?

○社長 許信行; 네.

○吳世根 委員; 그래서 한 1년 남짓 하셨으니까 어두운 것은 전등 숫자를 늘리던가, 축수를 조금 높여 가지고라도 개선을 하십시오.

○社長 許信行; 밤에는 전등을 켜 놓으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낮에는 전등을 켜 놓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吳世根 委員; 개선을 좀 하셔야지 그런다고 어두운 것을 그냥 보고 문제점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社長 許信行; 야간은 전등을 켜면 그래도 좀 나운데 낮에는 전등 불빛 자체가 태양 빛에 비해서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렵지요.

○吳世根 委員;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公社가 처음 오픈할 당시의 시설하고 지금 현대적인 시설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社長 許信行; 많지요.

○吳世根 委員;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社長 許信行; 지금 콘크리트 건물로 해 놓았는데요. 저것이 15년이 돼서 현재는 손을 댈 수가, 또 전면적으로 해야 할 만큼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도 있고 보존연한이 있기 때문에.

○吳世根 委員; 그러면 그대로 어둡고, 예를 들어서 습기 차고 하수도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데요?

○社長 許信行;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

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吳世根 委員;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근교 이하 전국적으로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公社가 주 업무 소관은 아닌 줄 알아요. 서울시 근교에서 지금 꽃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꽃시장이 보면 강남터미널 주위에서 유통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좀 고안을 하셔가지고 전국은 몰라도 서울근교에 꽃재배하는 농가를 위해서 앞으로 유통이랄지, 계약재배랄지 좀 시장성을 가지고 유통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社長 許信行; 아까 크게 늘리게 되면 꽃시장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구상을 하십니까?

○社長 許信行; 네.

○吳世根 委員; 본위원이 지난번에 외국 시찰을 갔을 때 네덜란드라는 국가를 갔더니 세계적으로 한 4위 된다 그러더라고요, 高市長도 가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 농가나 부업을 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꽃시장이나 거래유통 과정 그런 것을 우리 市가 조례개정을 하고, 또 議會에서 통과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社長 許信行; 그것은 확대개편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그래서 종합시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런 꽃시장이나 화훼농가를 위해서 내년에는 계획서를 한번 잘 만들어 보세요.

○社長 許信行; 별도로는 어려울 걸요, 아마.

- 吳世根 委員; 우리 市가 별도로는 못합니까?
- 社長 許信行; 지금 양재시장에 꽃시장이 있거든요.
- 吳世根 委員; 그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 社長 許信行; 지금 그것은 農水産物流通公社에서 하고 있습니다.
- 吳世根 委員; 그러니까 우리 서울市가 서울市 농가를 위하여 서민을 위해서 유통할 수 없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가 대대적으로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체가 되고, 우리 서울市가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社長 許信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吳世根 委員; 이상입니다.
- 委員長 鄭韓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 도중에 서울市 保健環境研究院 소속 農水産物檢査所長을 참고인으로 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이 자리에 오지를 앓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검사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해진 대로?
- 社長 許信行;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 아이템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한 닷시간 정도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들구요. 그래서 정밀검사는 그분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委員長 鄭韓植; 그 많은 것을 다 한단 말씀이시지요?
- 社長 許信行; 아닙니다. 품목수가 적습니다.
- 委員長 鄭韓植;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요?
- 社長 許信行; 하루에 건수가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

까 위원장님, 과거 통계로 봐 가지고 우리가 간이검사 같은 것을 해서 많이 나온 아이템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들깨잎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정밀검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끝으로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수수료 문제, 그 다음에 도매법인 자유경쟁 문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長 許信行;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7時 54分 監査終了)

○出席監査委員

鄭韓植 張夏雲 吳尙俊 郭順英

梁敬淑 吳世根 李善宰 李容富

鄭圭鎭 鄭鉉均 李亮漢 趙相勳

○專門委員

金東秀

○被監査機關參席者

農水産物公社

社長 許信行

流通處長 曹永台

流通情報處長 李宗根